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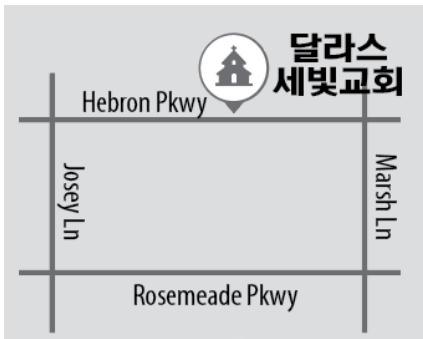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로 여는 하루〉 화요일-금요일 아침 6시 (기쁨의 언덕으로)

1. 중보기도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1)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 2)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서정언 선교사, 서순례 권사, 박세현 자매)
 - 3)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북한 선교 (갈렙선교회와 모퉁이돌선교회) 사역을 위하여
 - *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수단, 미얀마,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 *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엄목사님을 위하여
2.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3. 다음주일 8월 30일은 의료 선교사역을 섬기셨던
이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 연일 10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안내〉 Zelle : sebitkgmc@gmail.com (PNC bank)
Pay to the order of : SebitKGMC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김형남 목사
협동목사 / 김승호 목사
반주자 / 권한임 사모
영상 및 음향 / 김찬미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교회
달라스 만나교회, 케냐 마구무 감리교회
Longview 감리교회, Arkansas 감리교회

표어 :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2026년 8월 23일



세빛교회는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은혜의 만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2201 E Hebron Pkwy, Carrollton, TX 75010

Tel: 945-360-0049 sebitkgmc@gmail.com

facebook: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 Youtube :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오전 11:00 / 오후 2:30

교회소식		인도자
예배초청		
경배와 찬양	1.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2. 찬양하세 3. 주님여 이손을 꼭잡고 가소서 4. 여호와께 돌아 가자	세빛 찬양단
합심기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	인도자
대표기도		이지혁 집사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함께
봉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성찬예식		인도자
성경봉독	학개 (Haggai) 6:16-20	인도자
설교	신앙점점	김형남 목사
찬양	여호와께 돌아 가자	다함께
축도		담임 목사

온라인 새벽 예배

화요일 - 금요일 / 오전 6시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주일 예배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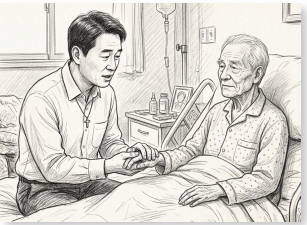
주일 2:30 / 2층 (End Zone)

다음 주일 담당

8월 기도 순서

- 8 / 2 : 권한임 사모
- 8 / 16 : 김영님 자매
- 8 / 30 : 담임 목사
- 8 / 9 : 담임 목사
- 8 / 23 : 이지혁 집사

비정한 세상가운데 피어난 참된 경건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비정함이 텍사스의 폭염보다도 더 마음을 지치게 함을 느낍니다. 지난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을 만나 치매에 걸린 한 성도님을 돌보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로하신 그 성도님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언어의 장벽을 건디며 40년이 넘는 세월을 묵묵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친구 목사님은 몇달 전 홀로 계신 성도님께 전화를 드리니 응답이 없어 찾아간 집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성도님을 발견하시고 지금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매일 같이 먼 거리의 병원을 그분을 돌보러 가시고 그 성도님의 모든 일을 힘겹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이전부터 치매증상은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집은 엉망이었고 벽은 부서져 있고 청소와 수리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을 더 짓누르는 것은 그분의 병든 몸과 언어의 한계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작 그분을 보살펴야 할 피붙이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자식들도, 형제들도 짐이 된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더기가 막힌 현실은, 목사님께서 그분을 돕고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가디언 자격 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와 형제들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친구 목사님도 너무 지쳐 정부에 모두 맡겨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정한 세상의 그늘 아래,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목사님이 정말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혈연의 끈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으로 그 성도님의 손을 잡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서류 한 장, 행정 절차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공공기관을 찾아 문을 두드리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비통한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예배보다, 세상이 버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마25:40)으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야고보서 1:27)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조차 포기한 그 외로운 자리에서 목사님이 흘리는 땀방울이야말로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경건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셈법에 밝고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외롭고 서러운 타국 땅, 치매로 기억이 스러져가는 어둠 속에서도 한 영혼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목사님의 손길 위로,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